

## 언어유희, 리듬, 그림의 만남: 셸 실버스타인의 *A Light in the Attic*의 번역\*

성 승 은 · 우 동 찬 · 박 건 영\*\*  
(한국외대)

### 1. 서론

언어유희는 소리의 유사성과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 번역이 어려운데 여기에 리듬감이 결합되면 이를 살려 번역하기가 더욱 어렵다. 여기에 그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번역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 멀티모달 텍스트(multimodal text)가 증가하면서 게임 번역이나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등 이러한 텍스트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sup>1)</sup>

본고에서는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결합해 번역에 많은 고민이 따르는 셸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A Light in the Attic*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언어유희와 리듬이 가득한 시가 그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실버스타인의 저서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창의적 내용으로 인해 수업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McClintic 2016: 20-22). 이 책의 번역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1)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에 대한 논의로 이창수(2008), 박태정(2013) 참조.

서 『다락방의 등불』을 번역한 신형건 번역가는 옮긴이의 말에서 “카툰풍의 간결한 그림과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넘치는 글의 완벽한 결합을 통해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한다. 본고는 이 작품의 번역서들에서 언어유희, 리듬, 그림의 결합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번역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멀티모달 텍스트가 날로 증가하며 기계번역이 발전하는 시대에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있는 텍스트는 이러한 결합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언어유희의 번역, 리듬의 번역, 글과 그림의 관계와 그 번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A Light in the Attic*과 번역서를 소개하고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시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선정된 시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해 함의를 도출한다.

## 2. 선행연구

### 2.1 언어유희 번역

델라바스티타(Delabastita 1996: 128)는 언어유희를 4가지를 중심으로 정의한다. 즉, 언어유희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고, 소통의 의미(communicative significance)가 있으며,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다. 이 중 소통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언어유희를 상대방이 알아차려야만 소통이 된다는 뜻이다. 델라바스티타(1996: 128)는 텍스트 내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언어유희(vertical)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언어유희(horizontal)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sup>2)</sup> 전

2) 언어유희는 형식은 유사한데 의미가 다른 것에 초점이 주어진다. 여기서 형식이란 소리와 철자를 말한다(Delabastita 1996: 128). 동음이의어(homonym): 소리와 철자가 같음. 동음이철어(homophone): 소리는 같고 철자가 다름. 동철이의어(homograph): 철자는 같고 소리가 다름. 유형유음어(paronym): 철자와 소리가 유사.

자는 텍스트 안의 특정 표현이 이중 의미를 내포해서 언어유희가 되는 것이며, 후자는 텍스트 안에 순차적으로 혹은 병렬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표현이 연관되어 언어유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표 1〉 델라바스티타가 분류한 언어유희(1996:128)<sup>3)</sup>

분류	동음이의어	동음이철어	동철이의어	유형유음어
동일 지점	<b>Pyromania:</b> A burning passion	Wedding <b>belles</b>	<b>MessAge</b> [1990년대 랩밴드의 이름]	Come for a <b>faith lift</b> [교회 슬로건]
다른 지점	<b>Carry on dancing carries Carry to the top</b> [Carry라는 야심찬 무용수에 관한 기사]	<b>Counsel for Council</b> home buyers	How the <b>US</b> put <b>US</b> to shame	It's <b>G.B.</b> for the <b>Beegees</b> [밴드 비지스의 영국 투어]

라도(Lladó 2002; Marco 2010에서 재인용)는 델라바스티타가 제시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 1) 소리의 유사성에 기반한 언어유희, 2) 다의어(polysemy)에 기반한 언어유희, 3) 동일한 소리(homonymy)에 기반한 언어유희, 4) 각종 변형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이 제안은 4)의 텍스트 내의 전반적인 변형(transformation)을 포함하여서 더 포괄적이다. 마르코(Marco 2010: 267)는 이에 대해 1)~3) 모두 그리고 4)번 중 혼성어(portmanteau)<sup>4)</sup>와 같은 경우는 델라바스티타의 정의와 겹치지만 애너그램(anagram)<sup>5)</sup>과 같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본고는 라도의 분류가 더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아래 분석에서 보겠지만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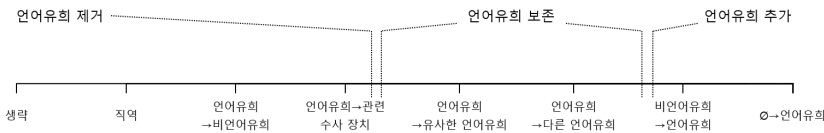
- 3) 예를 들면 ‘Pyromania’는 ‘pyro’에 ‘fire’, ‘heat’, ‘high temperature’의 뜻이 있어 동음이의어를 형성하며, ‘faith lift’는 ‘facelift’의 ‘face’와 ‘faith’의 소리가 유사해 유형유음어를 형성한다.
- 4) 원래 양쪽으로 열리는 큰 여행용 가방을 가리키는 어휘인데, 문학에서는 복수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때로 다중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어휘를 일컫는다 (Redfern 1984: 114).
- 5) 한 어휘에 있는 알파벳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른 어휘로 만드는 것이다(예: “Avida Dollars”(‘greedy dollars’)를 “Salvador Dali”로 바꾸는 경우. Marco 2010: 267).

*Light in the Attic*의 시 중에서는 어휘에서 특정 알파벳만을 삭제하여 언어유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델라바스티타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델라바스티타와 라도 모두 언어유희에 두운(alliteration), 모음운(assonance) 등의 운율적 요소를 포함한다(Marco 2010: 266-267). 언어유희를 어린이 문학교육에 적용한 이향근(2012) 역시 언어유희 논의에서 반복과 의성어·의태어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어 언어유희를 반복 및 의성어·의태어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를 위해 반복, 의성어·의태어, 두운(alliteration), 각운(end rhyme), 모음운(assonance), 자음운(consonance) 등을 ‘리듬’에 포함하여 보기로 한다. 마르코(2010: 268) 역시 언어유희의 번역 방법을 설명하면서 언어유희에 관련 수사장치(두운, 각운, 반복, 아이러니 등)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언어유희를 수사장치와 구분하고 있다. 레빅(Levick 2016)도 언어유희가 많고 랩과 같이 리듬이 강한 불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한 과정을 논하며, 번역에서 언어유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번역자가 리듬과 각운을 살려서 원문의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소개한다.

마르코(Marco 2010)는 언어유희가 적용되는 언어적 구조로 음소, 어휘, 형태소, 통사 기반을 소개하고, 그 외에도 관용어 기반, 이름 기반, 인유(allusion) 기반 등으로도 분류한다. 언어유희의 구체적인 번역 방법은 아래와 같이 도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언어유희 번역 방법(Marco 2010: 270)<sup>6)</sup>



〈그림 1〉에서 마르코는 언어유희가 관련 수사장치로 번역되는 경우를 언어유희의 손실로 분류하면서도 이 전략이 언어유희 보존에 가까운 전략이며 일종

6) 필자의 번역임.

의 보상 방법이라고도 하였다(Marco 2010: 280). 앞서 언어유희에 운율적 요소가 포함되기도 함을 논하였는데, 원문의 언어유희를 TT에서도 언어유희로 번역하지 못할 경우 이처럼 관련 운율적 요소로 번역되기도 한다. 위 그림의 가장 우측에서 언어유희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는 ‘보상(compensation)’ 방법으로 볼 수 있다(Baker 1992: 78). 이는 ST의 언어유희를 번역하기 어려울 때 TT의 다른 부분에서 언어유희를 첨가하여 전체적으로 ST와 TT의 언어유희의 빈도나 효과를 어느 정도 맞추는 방법이다. 성승은(2012)의 언어유희 번역 연구에서는 보상 방법이 사용된 예를 소개하고 있다. 김순미(2009)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나는 언어유희를 번역에서 살리는 방법으로 1) 수식어를 넣는 방법 2) 언어유희의 초점을 바꾸는 방법 3) 원문에서 언어유희에 사용된 어휘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만들어보는 방법 4) 원문 언어유희에 사용된 두 개의 어휘 중 하나만 살려서 이와 유사한 발음의 언어유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 2.2 리듬과 운율의 번역

리듬의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에 이르는 말이다. 리듬의 어원은 그리스어 ‘rhythmos’로서 ‘흐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며 시간, 운동, 공간과 관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최석화 2014: 290). 리듬은 시공간에서의 주기적인 반복, 낮과 밤 같은 자연현상은 물론 인간의 호흡이나 맥박도 리듬이 될 수 있어 모든 존재의 생존방식으로 볼 수 있다(홍문표 1994: 281). 이러한 관점에서 리듬은 모든 텍스트에 내재하는 개념이다(조재룡 2013: 97-104).

이향근(2012)은 리듬 인식을 통한 시 낭송 지도 방향을 논하면서 운율과 리듬의 관계를 아래 표와 같이 설명한다.

〈표 2〉 리듬과 운율의 관계 (이향근 2012: 145)

소분류	중분류	특성	실현 양상	비고
운율	운 (rhyme)	소리의 공간적 위치 반복	두운, 각운 등	객관적 확인 가능
	율 (meter)	소리의 시간적 거리 반복(고저, 장단, 강약)	음수율, 음보율	
내재율	-	걸음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내재적인 리듬	작품에 따라 상이	-

이 표에서는 리듬을 운율과 내재율로 나누고 있으나, 어휘나 문장 반복, 병렬, 대조, 점층법 등의 다양한 기제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자유시의 내재율을 논하는 연구들에서는 내재율의 실현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박슬기 2012). 운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성적 형식으로, 음의 강약·장단·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운율은 율, 율격, 리듬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정한 수의 음절 반복, 각운이나 두운 등의 작동으로 소리의 규칙이나 법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운율’의 용어가 적합하지만, 자유시에서는 ‘운율’의 기능이 약화되며 내용이나 의미, 이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리듬’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최석화 2014: 294-295).

‘리듬’에 대한 논의는 자유시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동일 요소의 반복이나 규칙성을 기반으로 둔 시가 아닌 자유시의 논의에서 촉발되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조재룡 2013: 103-104). 자유시에서의 리듬을 작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들을 보면(장석원 2013; 권혁웅 2014; 장철환 2009) 리듬이 율격, 운율 등과 함께 혼용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리듬은 모든 텍스트에 내재하여 의미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조재룡 2013). 조재룡은 통사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곧 리듬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본고에서도 리듬을 운율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A Light in the Attic*은 대체로 운율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운율의 개념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리듬’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시 운율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면 한국어에서는 운율을 창출하는 장치로 두운, 각운, 자음운, 모음운, 음보율/음수율<sup>7)</sup> 등이 논의된다(장철환 2009). 이외에 단어/구의 반복, 의성어·의태어, 대조 및 병렬, 점층법<sup>8)</sup> 등도 사용된다(성승은 2014: 7-8).

7) 음수율은 동일한 음절수의 반복을, 음보율은 동일한 마디의 반복을 말한다. 마디는 끊어 읽는 단위로 의미가 긴밀히 연결된 응집력 있는 단어군이다(황정산 2011: 234-240).

8) 점층법은 시에서 자주 쓰이는 수사법으로 반복법의 특수한 형태이다(김진우 2010: 391-99).

영어에서도 두운, 각운, 자음운, 모음운 등이 있고, 한국어의 음수율/음보율에 대해 음보(foot)와 울격(meter)이 있다. 음보는 하나의 시행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 하나와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위이고 영어 운율의 기본 단위이다. 울격(meter)은 강세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단위로, 강세의 형태와 음보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김진우 1997: 148). 음보와 울격은 영어의 리듬을 논하는 기본 요소로, 강세, 높낮이, 장단과 관련된다. 한국어는 강세가 없고 울격과 운율의 구조를 확정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박슬기 2011: 12-13). 영어에서도 단어/구/절의 반복, 대조 및 병렬, 점층법 등으로 리듬이 형성되기도 한다(성승은 2014: 8-10). *A Light in the Attic*은 언어유희와 함께 각운, 두운, 울격 등이 강한 시가 많다. 본고에서는 운율이 강한 시를 중심으로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리듬의 번역에 대한 연구로 박미준 외(2014)에서는 영한 노래 번역에서 운율적 대칭과 구문적 대칭이 있는 노래 구조를 살펴보는 데, 운율적 대칭구조가 있는 경우 특히 번역이 어려워 창의성과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리듬 번역과 관련해 가화성(speakability)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화성은 텍스트를 소리내 읽기 좋게 하는 속성인데, 희곡 번역 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기보다 청중에게 대사가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번역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시된 개념이다(Snell-Hornby 2006: 85). 어린이들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 줄 때는 가화성이 드러나게 번역을 해 주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성승은 2014; 신지선 2005). 성승은(2014)에서는 가화성이 높은 ST에 대한 번역서들을 비교하여 병렬, 음보율, 동일 자음 및 모음 반복, 어미 활용, 의성어·의태어를 포함하여 부사 활용, 점층법, 문장 형태 변환 등의 방법이 소개되었다.

### 2.3 글과 그림과의 관계

번역할 때 글과 그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 텍스트로 그림책과 만화를 꼽을 수 있다. 래시(Lathy 2015: 61)는 그림책과 만화에서는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번역자는 원작자의 의도를 고려해 원문과 번역문에서 독자에게 유사한 효과를 형성하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A Light in the Attic*은 아동과 성인 모두를

대상 독자로서 하며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시집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책과도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며 만화체의 그림과 어린이 그림책이나 만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언어유희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분석 텍스트에 등장하는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책과 만화 텍스트에 나타난 이들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니콜라예바와 스콧(Nikolajeva and Scott 2006: 1-17)은 그림책을 시각적 소통(visual communication)과 언어적 소통(verbal communication)의 두 층위가 결합된 텍스트로 규정하고 아이콘으로서 그림이 갖는 묘사의 기능과 기호로서 언어가 갖는 서사의 기능이 그림책에서 다양하게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언어와 시각 정보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된 텍스트인 그림책을 분석하는 도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텍스트 내 언어와 시각 이미지의 비중, 텍스트의 서사성과 비서사성을 기준으로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했다.

이성엽(2014)은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중복, 교차, 대립의 세 가지로 나누며 이러한 분류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글과 그림이 공생하는 아이코노텍스트(iconotext)로 정의하고, 문자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가 질적으로 대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제3의 텍스트이며 문자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가 상보성과 상호의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표 3〉 글과 그림의 관계 (이성엽(2014)을 정리)

글과 그림의 관계	설명
중복	글과 그림이 같은 내용 서술 및 묘사
교차	글과 그림이 서로 빈틈을 채우며 이야기에 기여
대립	글과 그림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보여 유머 효과 형성

이성엽(2014)은 특히 기호 간 반복성을 보여주는 ‘아이코노텍스트적 언어유희(iconotextual wordplay)’에 주목했다. 관용구가 그림책에서 시각 텍스트와 결합해 기호 간 유희를 형성할 때는 진부했던 관용구가 참신한 표현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이를 번역할 때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 사이에 관용구의 축어 의미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호 간 유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호 간 관계 유지를 위해 축어 의미를 번역하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관용 의미를 번역

하면 기호 간 유희가 없어지므로 이성엽은 축어 의미와 관용 의미를 전달하는 제3의 표현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아이코노텍스트 번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성엽은 시각 텍스트가 문자 텍스트의 맥락으로 기능하여 번역 해결책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시각 텍스트가 문자의 다의성을 배제하는 역할을 해 번역에서 어떤 표현을 선택할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주장은 만화의 언어적 결텍스트 번역 전략을 분석한 셀로티(Celotti 2008: 47)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셀로티는 번역자는 글과 그림이 각각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의 조화와 결속성에 주의하여야 하지만 그림을 단지 제약이나 ‘폭군’으로 인식하여 그림이 텍스트 번역에 제약이 된다고 한정하기 보다는 멀티모달 텍스트에서는 글과 그림 모두를 의미를 형성하는 자원으로 여기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 Light in the Attic*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관계는 이성엽(2014)의 분류에서 중복 관계와 교차 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원문에서의 글과 그림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또는 변형되었는지, 변형되었다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언어유희와 리듬이 원문과 번역문에서 각각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실버스타인은 한국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Where the Sidewalk Ends*)』(1974)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아동 문학계에서는 만화풍의 그림과 풍자적 시를 쓴 작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뉴욕 타임즈 아웃스탠딩 어워드(New York Times Outstanding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이향근 2013: 247-249). 실버스타인의 작품 특징은 특유의 흑백으로 된 그림이 짧은 이야기나 시와 함께 있다는 점이다. 그의 저서는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매년 수만 권이 판매되고 있으며(McClintic 2016: 20-21) 특히 1981년에 출간된 『다락방의 불빛(*A Light in the Attic*)』(1981)은 1974년에 발간한 『골목길이 끝나는 곳(*Where the Sidewalk Ends*)』(1974)과 함께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의 아동문학 연구자 맥도날드(MacDonald 1986: 268)는 실버스타인의 저서가

많이 판매된 이유는 작품에 담긴 유머가 아동 독자뿐만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가진 성인 독자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현대 아동 시 작가 중 유머를 작품 소재로 삼으면서 명성을 얻은 이로 실버스타인을 유일하게 꼽는다.

이 작품에 대해 총 5종의 한국어 번역서가 발견되었다. <표 4>의 번역본 중 『다락방의 등불』(1985)과 『다락방의 불빛』(1990)은 번역자가 김원석으로 동일한데 맞춤법 규정 변화로 인해 발생한 종결어미 ‘-습니다’의 표기 차이 외에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신본 『다락방의 불빛』(1990)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상영 번역의 『다락방에 불빛을』(1991)은 윤구병 번역의 최초 출간본 『다락방에 불빛을』(1982)과 상당 부분 유사성이 발견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윤구병 번역의 『다락방에 불빛을』(1982), 김원석 번역의 『다락방의 불빛』(1990), 그리고 신형건 번역의 『다락방의 불빛』(2011)의 3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표 4> A Light in the Attic 국내 번역본 발간 현황

도서명	번역자	출간 연도	출판사
<b>다락방에 불빛을</b>	<b>윤구병</b>	<b>1982</b>	<b>한빛</b>
다락방의 등불	김원석	1985	예문당
<b>다락방의 불빛</b>	<b>김원석</b>	<b>1990</b>	<b>예문당</b>
다락방에 불빛을	이상영	1991	청목
<b>다락방의 불빛</b>	<b>신형건</b>	<b>2011</b>	<b>보물창고</b>

각 번역서는 결텍스트에서 번역서의 대상 독자가 어린이와 어른 모두임을 언급한다. 번역가 윤구병의 1982년 번역서 표지 날개에서는 실버스타인에 대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그려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김원석의 1990년 번역서에는 율킨이의 말에서 원서에 대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그네들이 늘 만나고 느끼는 것이기에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돌이켜 보고 되짚어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2011년 번역서에서 번역가 신형건은 실버스타인을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 『모모』의 엔데와 함께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작가”로 꼽았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본고에서는 번역서의 대상을 어린이로 특정하지 않는다.

*A Light in the Attic*에는 총 136편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언어유희가 있고 리듬감이 강하고 그림이 있는 6개를 선정하였는데 언어유희, 리듬, 글과 그림의 관계의 면에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닌다. ‘The Sitter’는 동음이의어, ‘Importnt?’는 알파벳 삭제제를 통한 변형, ‘What Did?’는 동음이철어, ‘Bear in There’는 운율과 각운, ‘Bored’는 동음이철어와 어휘 반복 및 각운, ‘Deaf Donald’는 텍스트 속 그림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 4. 분석결과

### 4.1 ‘The Sitter’

ST: THE SITTER

Mrs. McTwitter the baby-sitter,  
I think she’s a little bit crazy.  
She thinks a baby-sitter’s supposed  
To sit upon the baby.

TT1: 안는 사람

어린애 안는 안짱다리 아줌마  
그 여잔 조금 돈 것 같아  
어린애 안는 걸  
어린애 위에 앉는 걸로  
알고 있으니.

TT2: 앉는 사람

아가 보는 아줌마 맥트위터 부인은  
내가 생각해도 좀 돌았나봐요.  
애기 보는 사람이 뭐,  
애기를 깔고 앉는 사람인 줄 아나봐요.

TT3: 안는 사람

안절부절 아줌마가 아기를 봐주러 왔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살짝 돈 것 같아.  
아기를 안는 일을 아기 위에 앉는 일로  
착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 시에서는 “sitter”가 ‘아기 돌보는 사람’과 ‘앉는 사람’의 두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로 사용되었고 이 중 ‘to sit’(앉다)이라는 의미가 그림에 사용되었다. 또한 “sitter”는 그림의 인물 “McTwitter”와 각운(end rhyme)을 이루기도 한다. 2행과 2행의 마지막 단어 “crazy”, “baby” 역시 각운을 이룬다.

TT1은 ‘babysit’와 ‘sit’의 발음과 철자가 같아서 나타나는 언어유희를 ‘안다’와 ‘앉다’라는 동음이철어로 번역하였다. 이 두 개 의미 중 어떤 것을 제목으로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TT1과 TT3은 “안는”을, TT2는 “앉는”을 선택하였다. 그림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이므로) “안는”의 경우 제목과 그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엽(2014)의 연구에서 보듯이 글과 그림 간 관계는 대립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부러 불일치를 보임으로써 언어유희를 드러낼 수 있다. TT1은 “Mrs. McTwitter”라는 이름을 “안짱다리 아줌마”로 번역하여 언어유희(‘앉는’, ‘안는’)에서의 소리 ‘안’을 활용하여 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안는”과 “안짱다리”, “어린애 안는 걸”과 “어린애 위에 앉는 걸로”와 같이 형태와 발음이 유사한 음절/어휘를 연속해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렸다.

TT2는 이름을 “맥트위터”로 음차하였다. 제목은 세 번역서 중 유일하게 ‘앉는 사람’으로 선택해 제목과 그림 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 리듬은 3행에서 “어린애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여 겹표를 이용한 휴지를 사용하고, 2행과 4행에서 “... 나봐요”의 반복을 통해 형성하였다. ST에서는 2행과 4행의 마지막 단

9) ST에 없는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 “안짱다리”를 TT에 삽입한 점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장애 등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해 편견이나 비하의 의미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강조하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에서 각운을 만들었는데 TT2는 한국어 어미를 동일한 형태로 만들었다.

TT3은 이름을 “안질부질 아줌마”로 번역했고, TT1과 유사하게 동음이철어 (“안는”, “앉는”)를 사용해 ST의 언어유희 효과를 유지하였다. TT1과 TT3은 언어유희나 ‘안’이라는 음절의 활용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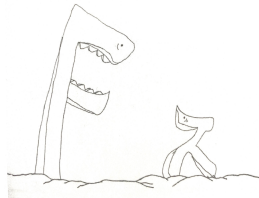
#### 4.2 ‘Importnt?’

ST: IMPORTNT?

Said little a to big G,  
 “Without me The sea would be  
 The se.  
 The flea would be  
 The fie.  
 And earth and heaven couldn’t be  
 Without me.”  
 Said big G to little a,  
 “Even the se  
 Could crsh nd spry,  
 Nd the fle would fly  
 In the sme old wy,  
 Nd erth nd heven still would be,  
 Without thee.”

TT1: 응요해?

조그마한 ㅈ이 커다란 ㅋ에게 말했다.  
 “내가 없으면  
 집은  
 입이 되고  
 주걱은  
 우걱이 될 거야.  
 그리고, 조국도  
 잠도, 나 없으면, 없지”  
 커다란 ㅋ이 조그마한 ㅈ에게 대답했다.  
 “비록 입이  
 아빠이고 무너지더라도,  
 그리고 우걱이 육그릇에  
 빠일 억에도,  
 어엿건,  
 오국과 암은, 너 없더라도  
 있었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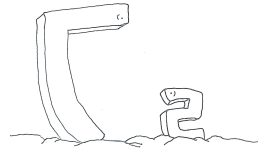
TT2: 중요한 것은?

소문자 a가 대문자 G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으면  
 “Sea(바다)는 Se가 되고,  
 Flea(벼룩)은 fle가 되고,  
 earth(땅)과 heaven(하늘)도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문자 G가  
 소문자 a에게 말했어요.  
 “너 없는 Se(바다)라도 요란한  
 소리를 내고  
 물보라를 일으킬 수 있고,  
 너 없는 fle(벼룩)도 뿔 수 있어.  
 똑같은 방법으로,  
 너 없어도 땅과 하늘은 여전하단다.”



TT3: 특별해?

르이 ㄱ에게 말했어.  
 “내가 없으면  
 하늘은  
 하느이 되고,  
 별은  
 벼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달과 바람도 내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지.”  
 그러자 ㄱ이 르에게 대꾸했단다.  
 “혹시 하느이  
 새빠개지고 구멍이 나더아도  
 그리고 벼이 다  
 떠어지더아도  
 다과 바암은 여전히 남아 있으거야.  
 그토록 특별한  
 네가 없더아도 마이야.”



ST는 제목과 본문에서 특정 알파벳을 제거하여 언어유희를 만들었다. 이러한 유형의 언어유희는 델라바스티타(Delabastita 1996)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적 변형을 포함하는 라도(Lladó 2002)의 분류에 따른 언어유희이다. 시의 내용은 대문자 G와 소문자 a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글과 그림 사이는 중복 관계를 형성한다. 1행에서 7행까지는 G와 동일한 음으로 각운이 있으나, 3행과 5행은 “se”, “fle”로 다른 각운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단어에서 ‘a’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0행에서 14행까지도 동일한 각운을 이룬다. ST의 끝부분인 13행과 14행 “erth and heaven still would be/Without thee”에서 “erth nd heven”은 사실 ‘a’가 없더라도 ‘a’가 있을 때와 동일한 발음이 가능하므로 이 시의 결정적 부분이다. 또한 제목의 의미인 ‘important’와 모순되는 효과로 유머를 형성하는 ‘네가 없어도 여

전하다(still would be without thee)’를 뒷받침한다.

TT1과 TT3은 영어 알파벳을 한글의 자음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어떤 자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소재가 달라진다. TT1과 TT3은 각각 “ㅈ”과 “ㄱ”, “ㄱ”과 “ㄴ”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ST의 “sea”, “fly”, “earth”, “heaven”이 TT1에서는 “집”, “주걱”, “조국”, “잠”, TT3에서는 “하늘”, “별”, “달”, “바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ST의 마지막 부분 “erth and heven still would be/Without thee”에 대해 TT1에서는 자음 ‘ㅈ’이 빠진 “오국”, “암”, TT3에서는 ‘ㄱ’이 빠진 “다”, “바암”이 된다. 해당 자음의 유무에 따라 단어의 발음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ST만큼의 재치가 발휘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한국어의 구조상 ST의 유머를 살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TT2에서는 대체로 ST의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괄호 안에 한국어를 병기했는데, 끝부분에서는 한국어로만 “똑같은 방법으로, 너 없이도 땅과 하늘은 여전하단다”라고 기술되어 ST에서 강조한 철자의 유무를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TT1과 TT3은 그림을 교체하여 원문의 글과 그림의 관계가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전반적으로 이국화 번역을 한 TT2는 이 시에서도 본문에서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림도 바뀌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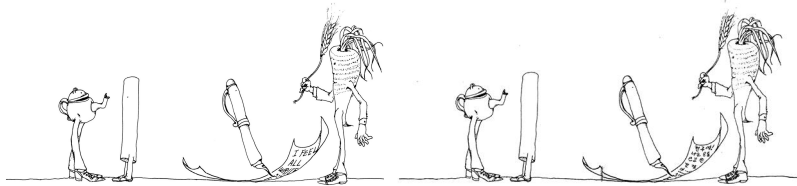
### 4.3 ‘What Did?’

ST: WHAT DID?

What did the carrot say to the wheat?  
 “‘Lettuce’ rest, I’m feeling ‘beet.’”  
 What did the paper say to the pen?  
 “I feel quite all ‘write’, my friend.”  
 What did the teapot say to the chalk?  
 Nothing, you silly... teapots can’t talk!

TT1: 뭐라고 했게?

당근이 보리에게 뭐라고 했게?  
 “상치 쉽아. 나는 우영 같은 느낌이야.”  
 종이가 펜에게 뭐라고 했게?  
 “친구여, 나는 온통 ‘쓰고 쓴’ 것 같아.”  
 주전자는 분필에게 뭐라고 했게?  
 바보 같으니, 주전자가 어떻게 말을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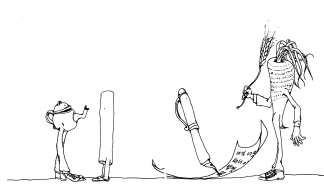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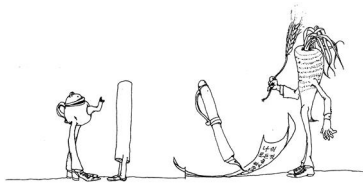


TT2: 뭐라고 했게요?

홍당무가 밀에게 뭐라고 했게요?  
 “이파리도 먹는 것이면 좋겠어.”  
 종이가 만년필에게 뭐라고 했게요?  
 “나도 쓰고 싶어.”  
 찻주전자가 분필에게 뭐라고 했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바보…,  
 찻주전자는 분필에게 할 말이 없대요

TT3: 뭐라고 했게?

당근이 밀에게 뭐라고 했게?  
 “‘부추’를 살걸 그랬지. 내 구두보다 ‘쌀’  
 것 같은데.”  
 종이가 펜에게 뭐라고 했게?  
 “친구여, 네가 너무 ‘써서’ 이젠 밥맛이 없  
 구나.”  
 찻주전자는 분필에게 뭐라고 했게?  
 에이, 바보… 찻주전자가 뭘 말을 해!



ST에는 동음이의어(Lettuce’ rest, I’m feeling ‘beet’, I feel quite all ‘write’)로 이루어진 언어유희가 있어서 야채와 곡물 이름, 종이와 펜에서 연상되는 언어유희가 번역에서 표현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1행과 2행, 3행과 4행, 5행과 6행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wheat-beet”, “pen-friend”, “chalk-talk”로 각각 각운이 있고, 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글과 그림은 중복 관계이다.

세 번역서 중 TT3만 세 군데의 언어유희를 모두 살려서 표현했다. 우선 원문의 “Lettuce’rest, I’m feeling ‘beet’”을 TT1은 “상치 쉽야. 나는 우엉 같은 느낌이야”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당근이 “보리”에게 하는 말인데 “보리”를 “상치 쉽야”라고 불러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우엉 같은 느낌이야” 역시 언어유희 효과가 사라졌다. TT2는 “이파리도 먹는 것이면 좋겠어”로 번역해 직역은 아니지만 언어유희 효과가 사라졌다. TT3은 “부추”와 “쌀”을 등장시켜 채소나 곡물에 대한 대화임을 보여주고, ‘부추’와 유사한 발음의 ‘부추’를 사용해 ‘구두’와 연결하는 언어유희를 만들어냄으로써 ST에서 ‘피곤하니 쉬자’라고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도했다. “쌀”에서도 ‘값이 싸다’는 뜻이 들어가도록 번역하

여 동음이의어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ST의 “I feel quite all ‘write’, my friend.”를 TT1, TT2와 달리 한국어 “써서”의 중의성을 사용해(‘맛이 쓰다’, ‘종이에 쓰다’) 원문과 동일하게 동음이의어 효과를 살렸다.

한편 세 번역서는 원문의 각운에 대해 각각 “했게?”, “했게요?”, “했게?”를 반복하여 한국어 어미를 활용해 리듬을 나타낸다. 원문의 그림에서는 종이 위에 펜이 “I FEEL ALL WRITE”라고 쓰는 모습이 있는데 이를 세 번역서 모두 종이에 쓰인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대체했다. TT1은 “친구여! 나는 온통 ‘쓰고 쓴’ 것 같아”로 대체했고 TT2는 “나의 모든 것을 써보자”, TT3은 “네가 너무 써서 이젠 밥맛이 없구나”로 바꾸어, 원문에서 종이가 만년필에게 말하는 부분을 한국어로 옮겨 원문의 글과 그림의 관계를 번역문에서도 유지했다.

#### 4.4 ‘Bear in There’

ST: BEAR IN THERE

There’s a Polar Bear  
In our Frigidaire—  
He likes it ‘cause it’s cold in there.  
With his seat in the meat  
And his face in the fish  
And his big hairy paws  
In the buttery dish,  
He’s nibbling the noodles,  
He’s munching the rice,  
He’s slurping the soda,  
He’s licking the ice.  
And he lets out a roar  
If you open the door.  
And it gives me a scare  
To know he’s in there—  
That Polary Bear  
In our Frigidyaire.

TT1: 저 곰 좀 봐

우리 냉장고 안에  
북극곰 있지.  
시원해서 좋다나.  
쇠고기는 깔고 앉고,  
물고기는 코에 박고,  
털북숭이 손들은  
버터 접시 속에 칠박.  
국수는 오물오물,  
쌀은 우둑우둑,  
소다수는 훌쩍,  
얼음은 짹짹 핥고.  
문만 열라 치면,  
우우우 으르렁.  
냉장고의 곰만 보면  
가슴이 덜컹.  
우리 냉장고 안에  
북극곰 있지.

TT2: 냉장고 속의 곰

북극의 곰이 냉장고 속에 들어있어요.  
 곰은 냉장고 안이 차가워서,  
 그곳을 좋아해요.  
 고기 위에 앉아서,  
 생선을 얼굴에 대고,  
 털이 송송한 큰 발은  
 야채 저장실에 넣고,  
 국수를 조금씩 뜯어 먹기도 하고,  
 쌀을 우직우직 씹어 먹기도 하고,  
 사이다를 후룩후룩 소리내어 마시고,  
 얼음을 핥기도 해요.  
 만약에 네가 문을 열어 본다면,  
 마구 으르렁거릴 거예요.  
 곰은 자기가 거기에 있다고,  
 큰 기침을 해요.  
 북극 곰이 우리 냉장고 속에 들어있어요.

TT3: 저기에 곰이 있어

우리 냉장고 안에  
 북극곰이 있어.  
 뭐, 시원해서 좋다나.  
 고기는 깔고 앉고  
 생선에 코를 박고  
 털복숭이 앞발은  
 버터 접시 속에 담그고  
 국수는 우물우물 삼키고  
 쌀은 우적우적 씹어 먹고  
 사이다는 별걱별걱 들이켜고  
 얼음은 할짝할짝 핥고 있어.  
 만일 네가 문을 열면  
 으르렁거릴 거야.  
 저기에 있는 곰만 생각하면  
 난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저 북극곰 말이야.



ST에는 “polar”와 “polary”, “frigidaire”와 “fridgitydaire”가 변형된 언어유희가 발견된다. “polary”와 “fridgitydaire”는 리듬감이 생기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율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일부만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강박자를 뜻한다.

There's a Polar Bear ( / - / - / )  
 In our Frigidaire- ( / - / - / )<sup>10)</sup>  
 He likes it 'cause it's cold in there. ( - / - / - / - / )  
 With his seat in the meat ( - / - / )  
 And his face in the fish ( - / - / )  
 And his big hairy paws ( - / - / )  
 In the buttery dish, ( - / - / )

1행과 2행은 강약(trochee) 3음보(trimeter), 3행은 약강(iamb) 4음보(tetrameter, 4-8행은 약약강(anapaest) 2음보(dimeter)이다.<sup>11)</sup> 또한 1, 2, 3행에는 각운이 있고, 마지막 2개 행은 첫 2개 행의 순서를 바꾸어서 각운을 이룬다. “face in the fish”, “nibbling the noodles”, “slurping the soda” 등에서의 자음운도 발견된다.

세 번역서 모두 마지막 2개 항의 “polary”와 “fridgitydaire”를 어휘 자체로는 다르게 번역하지 않았다. TT2와 TT3은 시의 시작 부분과는 다르게 문장 내에 변형을 주었다. TT2은 첫 부분에서 “북극의 곰이 냉장고 속에 들어 있어요.”라고 하고 마지막에 “북극 곰이 우리 냉장고 속에 들어있어요”라고 하여 “우리”를 첨가했다. TT3은 첫 부분에서는 “우리 냉장고 안에 북극곰이 있어”, 마지막 부분은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저 북극곰 말이야”라고 하여 변형을 주었다. 따라서 두 번역본은 언어유희에 대해 문장 내에 어휘를 첨가하거나 변형을 주어서 다른 리듬을 갖도록 하였다. TT1은 두 부분을 동일하게 표현했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강세가 없으므로 영어의 율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번역서에서는 리듬감을 강화하기 위해 음보율, 병렬,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였다. TT1은 “국수논/ 오물오물// 쌀은/ 우둑우둑// 소다수논/ 훌쩍// 얼음은/ 싹싹 핥고//”와 같이 2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TT3도 “국수논/ 우물우물/ 삼키고// 쌀은/ 우적우적/ 씹어 먹고// 사이다는/ 별컹별컹/ 들이켜고// 얼음은 /할 짹할짹/ 핥고 있어//”와 같이 3음보로 읽는다. TT2는 상대적으로 음보율이 강하지는 않으나 ST의 구조를 활용하여 반복적인 문장구조로 병렬을 이루기도 했

10) 1행과 2행은 강약(trochee)의 3음보인데, 마지막 음보에서는 약박자가 없는 불완전한 음보이다. 이러한 음보를 catalexis라고 한다(Pascual 2017: 87).

11) 율격과 음보에 대한 설명은 카퍼와 아트리지(Carper and Attridge 2003)를 참조한다.

다(“국수를 조금씩 뜯어 먹기도 하고// 쌀을 우직우직 씹어 먹기도 하고”).

세 번역서 모두 의성어·의태어를 적극 활용하여 번역했다. 다른 5편에 비해 이 시의 번역에서 특히 의성어·의태어가 빈번하다. 이것은 이 시가 특히 울격이 강해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성어·의태어는 가화성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 논의되기도 하는데(성승은 2014; 신지선 2005),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 훨씬 발달해 있다(김도훈 2014). TT3의 “얼음은 활짝활짝 활고 있어”와 같이 같은 소리의 음절(“활”과 “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만들기도 하였다.

글과 그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의 내용은 북극곰이 냉장고 안에서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을 화자의 시각에서 묘사하는 반면 그림은 이미 음식을 먹고 흐트러트린 후 냉장고 안에 기대어 앉은 북극곰의 모습과 열려있는 냉장고 문 뒤에서 이를 몰래 쳐다보는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글과 그림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시간상 전후 관계로 연속선상의 이야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성엽(2014)의 기준으로 교차 관계이다. 세 번역서도 모두 ST의 내용을 유지하는 번역을 하고 그림을 변형시키지 않아 동일하게 교차 관계를 유지하였다.

#### 4.5 ‘Bored’

ST: BORED

I can't afford  
A skateboard.  
I can't afford  
An outboard.  
I can't afford  
A surfboard.  
All I can afford  
Is a board.

TT2: 따분함

스케이트 보드도 살 수 없고,  
아우트 보드도 살 수 없고,  
서핑 보드도 살 수 없고,

TT1: 지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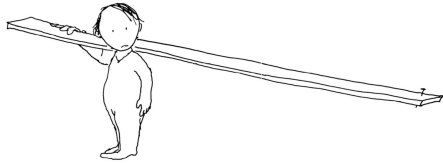
장기판 마련?  
여유가 있었어야지.  
오투판은?  
여유가 없어.  
바둑판은?  
마찬가지야.  
마련할 수 있는 건  
널판뿐이었어.

TT3: 따분해

스케이트보드를 살  
여유가 있어야 말이지.  
모터보트를 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판자대기 하나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말이지.  
서프보드를 살  
여유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마련할 여유가 있는 건  
겨우 널빤지 한 장 뿐이니 말이야.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갖고 싶은 “board(skateboard, outboard, surfboard)”를 하나씩 나열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는 한탄도 반복한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단순한 “board” 밖에 없었다는 푸념으로 시가 끝난다. 끝에 못이 박힌, 어느 담장에서 뜬어 온 듯한 ‘판(board)’을 들고 있는 무표정한 아이가 있는 그림은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 시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는 같은 내용을 서술 및 묘사하는 중복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목인 ‘Bored’는 화자가 텍스트의 마지막에 느낀 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목은 ‘Bored’인데 그림에는 “board”가 있어 동음어철어의 언어유희가 사용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동음에서 오는 언어유희를 살리기 힘들고, 실제로 세 번역서 모두 이 언어유희 전달은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지루함’이라는 의미를 공통으로 담고 있는 세 TT의 제목과 판자를 들고 있는 그림과의 연관성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ST에서는 “I can’t afford”가 반복되어 운율이 나타나고, “bored”, “afford”, “skateboard”, “surfboard”, “board”로 이어지는 각운이 있다. 세 번역서 모두 이러한 운율과 각운을 TT에 반영하지만 그 결과물은 차이가 크다.

TT1은 “I can’t afford”의 반복에서 오는 운율을 반영하는 대신 “여유가 있었어야지”, “여유가 없어”, “마찬가지야”로 각기 달리 표현했다. ‘-board’로 끝나는 어휘의 반복은 세 TT 중 유일하게 “보드”로 음차하지 않고 “판”으로 번역했으며, 한국 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어휘인 ‘장기판’, ‘옷판’, ‘바둑판’ 같은 놀이판으로 현지화했다. 다만 ST의 “skateboard”와 “surfboard”는 사람이 위

에 타고 노는 가늘고 길쭉한 판이라 그림에 나오는 기다란 판과 이미지가 겹치지만, TT1에서 사용한 놀이판들은 대부분 정사각형 형태라 그림과의 연관성이 ST보다 약해졌다.

TT2는 별도의 행으로 반복되는 “I can’t afford”를 “살 수 없고”로 번역했으며 한 문장이 2개 행으로 분단된 1~6행을 문장당 1개 행으로 통합해 3행으로 줄였다. “outboard”를 “아우트 보드”로 음차했는데, 이 단어는 보트용 추진기로 자주 사용되는 선외기(outboard motor)나 이러한 선외기를 장착한 보트를 의미한다. TT의 각운을 고려해 음차했다고 추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다. 마지막 행의 “board”는 음차하지 않고 “판자대기”로 번역해 각운이 깨졌다.

TT3은 “I can’t afford”를 “여유가 있어야 말이지”로 번역하고 ST처럼 별개의 행으로 처리해 외형적인 구조는 ST와 가장 유사하다. TT2와 유사하게 “board”를 “보드”로 음차했지만, 한국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outboard”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터보트”로 대체했다. 마지막 행의 “board”를 “널빤지”로 번역해 TT2처럼 마지막에 각운이 살지 않았다.

#### 4.6 ‘Deaf Donald’

##### ST: DEAF DONALD

Deaf Donald met Talkie Sue

But  was all he could do.

And Sue said, “Donald, I sure do like you.”

But  was all he could do.

And Sue asked Donald, “Do you like me too?”

But  was all he could do.

“Good-bye then, Donald, I’m leaving you.”

But  was all he did do.

And she left forever so she never knew

That  means I love you.

##### TT1: 귀머거리 돌이

귀머거리 돌이가 수다쟁이 순이를 만났다.

그러나 돌이는 가 고작이었지.

그러자 순이가 말했지. “돌아,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러나 돌이는 가 고작이었지.

순이가 물었지. “너도 난 좋아하니?”

그러나 돌이는 가 고작이었지.

“잘 있어 돌아, 난 갈 거다.”

그러나 돌이는 가 고작이었지.

순이는 끝끝내 떠나버렸지. 그러나 몰랐지.

바로 이 “널 사랑해”라는 뜻인 줄을.

TT2: 귀머거리 도널드

귀머거리 도널드가 토끼-슈를 만났어요.

그러나  이것밖에 도널드는 할 수 없어요.

"도널드, 나는 널 정말 좋아해." 슈가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너도 날 좋아하니?" 슈가 물었어요.

그래도  이것만이 도널드의 대답 전부예요.

"그럼, 잘 있어. 나는 가야겠어."

그래도  도널드는 여전히 같은 대답입니다.

그러하여 슈는 영원히 떠나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는 너를 사랑해"란 것을 전혀 몰랐어요.

TT3: 귀머거리 도널드

귀머거리 도널드가 수다쟁이 수를 만났지.

그런데 도널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

그러자 수가 말했지. "도널드야,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런데 도널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

그러자 수가 물었지. "너도 날 좋아하니?"

그런데 도널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

"그럼, 이만 안녕. 도널드, 난 간다."

그런데 도널드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

수는 영영 가 버렸지. 그러나 전혀 몰랐지.

도널드가 수화로  "널 사랑해"라고 말한 줄음.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제스처를 그린 그림이 텍스트 사이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자는 처음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시를 읽다가 마지막 행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이 그림이 의미가 담긴 언어, 즉 수화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작별로 끝나 버린 시의 내용에서 안타까움과 여운을 느끼게 된다. 이 시에서 그림은 단순히 상황 이해를 돕는 보조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텍스트의 일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글과 그림이 결합해서 의미를 형성하므로 이성엽(2014)의 분류 중 교차관계이다.

세 개의 TT는 모두 ST의 삽화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수화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제스처는 언어마다 전부 다르다. 글로 치환하면 이 시의 그림은 'I love you'이지 '너를 사랑해'가 아니다. 특히 앞서 4.2에서 언급한 'Importnt!'에서 알파벳이 나오는 ST의 그림을 한글 자음이 나오는 그림으로 변경해 현지화한 TT1과 TT3이 이 시에서는 그러한 현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ST에서의 “Donald”는 “deaf”와 두운을 이룬다. 또한 각 행의 마지막에서 각 운을 이루고, “But ( )<sup>12)</sup> was all he could do”가 반복된다. TT1은 “귀머거리<sup>13)</sup> 돌이”로 번역하여 두운이 살지 않았고 “Sue”를 “순이”로 각각 인물명 현지화를 거쳤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화의 현지화가 진행되지 않아 수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자가 읽을 경우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순이가 하는 말 이외에는 각 행을 “-지”로 번역하여 리듬을 표현하였다.

TT2는 제목을 ‘귀머거리 도널드’라고 번역하여 두운은 살지 않았다. 한국어 어미의 경우 “-요”와 “-다”의 두 가지가 불규칙하게 사용되어 각운의 효과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Talkie”는 “토키”로 음차했는데, ST에서 “Sue”에게 이러한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말을 하지 못하는 “Donald”와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ST에서 의도한 바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TT3은 2, 4, 6, 8행에 “그런데 도널드는 ( ) 이렇게 하는 게 다였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리듬을 형성하였다. “Talkie Sue”의 경우 “수다쟁이 수”로 번역해 두운을 형성하여 제목 ‘귀머거리 도널드’에서 ‘Deaf Donald’의 두운을 살리지 못한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 TT3은 마지막 행에서 도널드의 제스처가 수화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ST에서는 수화의 내용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그 의미를 언급해 독자가 스스로 도널드가 수화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문이 주는 여운이 번역문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12) 괄호 안에는 그림이 나온다는 뜻이다.

13) 제목에서 세 개의 TT가 모두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귀머거리’라는 어휘를 사용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특히 부족했던 80~90년대에 발간된 TT1과 TT2는 참작이 가능할 수 있지만 2011년에 발간된 TT3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그대로 시 제목에 채용한 점은 어린이 독자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고 실제로 책을 읽을지 모르는 장애가 있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 5. 논의 및 결론

### 5.1 분석 결과 종합

세 번역서를 상대적으로 볼 때, TT1과 TT3은 원문의 언어유희를 가능하면 한국어에서도 언어유희로 표현하고 운율적 리듬감을 살려 번역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과의 일관성을 위해 그림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 TT2는 원문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였고, ‘Importnt?’에서와 같이 원문의 형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림 역시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TT2는 실버스타인 특유의 언어유희와 리듬이 드러나지 못했다.

언어유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법, 관련 수사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원문의 언어유희에 사용된 어휘와 의미가 유사한 단어, 그리고 그 단어와 유사한 발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What Did?’의 “‘Lettuce’ rest, I’m feeling ‘beet’” 부분을 TT3은 “‘부추’를 살걸 그랬지. 내 구두보다 ‘쌀’ 것 같은데”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원문의 맥락과 같이 야채 이름 언어유희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휘로, “부추”는 특히 ‘부츠’와 비슷한 발음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그림에서와 같이 야채와 곡물이 등장하게 하면서도 뜻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는 영어의 동음이의어/동음이철어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동음이의어/동음이철어를 찾는 것이다. ‘What Did?’에서 “right”, “write”를 TT3에서 “써서”라고 하여 ‘맛이 쓰다’와 ‘글을 쓰다’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게 한 경우, ‘The Sitter’에서 세 개의 TT 모두 ‘آمد’와 ‘안다’를 활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세 번째로는 번역 텍스트의 문장 내에 어휘를 첨가하거나 변형을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Bear in There’에서 “polar”와 “polary”, “Frigidaire”와 “Fridgitydaire”에 대해 TT3에서 “우리 냉장고 안에 북극곰이 있어”,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저 북극곰 말이야”로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었다.

리듬감을 살리는 번역 방법의 경우, 원문의 운율에 대해 음보율, 병렬, 의태어·의성어, 동일 음절/어휘 및 변형된 어휘의 반복이 활용되었다. 특히 율격이 강한 ‘Bear in There’의 번역에서 리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활용되었다. 이 시의 번역에서는 음보율, 병렬, 의성어·의태어가 적극 사용된 것을 보았

다. 그 외에도 TT1에서 “우우우 으르렁”, TT3에서 “뭘, 시원해서 좋다나”와 같이 감탄사나 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발견되었다. ‘Bored’에서 두드러지는 각운에 대해서는 TT에서 동일/유사 어휘를 반복하거나 변형하기도 하였다(“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없어”, “마찬가지야”). 그 외 ‘The Sitter’, ‘What Did?’에서는 어미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리듬이 언어유희 번역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The Sitter’의 번역서 중 TT1, TT3에서 “안짱다리 아줌마” “안절부절 아줌마”라고 한 것은 ‘앉는-안는’으로 이어지는 언어유희 번역에 운율을 맞춘 것이다. 이 경우에는 원문에서 ‘sitter-McTwitter’에서 각운이 있기도 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번역서에서 언어유희를 기반으로 운율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유희와 운율의 번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논한 것처럼 언어유희가 같거나 유사한 소리를 활용하면서 그 정의가 운율과 결합되어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Marco 2010: 266-267; 이향근 2012). 여기서 기억할 점은 원문의 특정 언어 기제가 한국어의 특정 기제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문의 울격이 꼭 한국어에서는 음보율로 번역되는 것은 아니며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글과 그림의 조화와 관련해서는, ‘Importnt?’에서 TT1과 TT3의 그림이 바뀌었고 ‘What Did?’에서도 세 번역 모두 그림 안에 있는 영어가 한글로 바뀌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텍스트에서 글뿐 아니라 그림 또한 번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Importnt?’의 경우 두 번역서에서는 전체적인 번역 방향에 따라 그림이 한국어의 자음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때 글에 사용된 소재에 따라 해당 자음이 선택되었다. ‘Deaf Donald’의 경우는 세 개 번역서 모두 원문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여기서의 그림은 수화를 표현한 것인데 수화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면에서 그림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림은 텍스트 번역 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성엽(2014)과 셀로티(2008)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그림이 번역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The Sitter’의 경우 그림을 기반으로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앉는’

14) 그림을 바꾸는 것은 원문 출판사와의 계약 관련 사항일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논하지 않는다.

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세 번역서는 동음이의어인 원문 제목 ‘The Sitter’를 ‘앉는 사람’과 ‘안는 사람’으로 다르게 번역했는데, 후자로 번역하더라도 꼭 그림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목과 그림을 통해 언어유희를 더 잘 유추할 수도 있다. 이것은 ‘Bored’의 그림에서 ‘판자(board)’를 보여주는 것 과도 같다.

## 5.2 다양한 번역 방법 제안

아래 번역은 이전 수업에서 ‘The Sitter’와 ‘Bored’를 학생이 번역한 것으로<sup>15)</sup> 언어유희, 운율, 그림과의 관계를 더 살펴볼 수 있어서 소개한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보미씨는  
약간 ‘돌 아이’ 같아요.  
자기가 아이 돌보미가 아니라  
‘아이돌 보미’인 줄 알거든요.

앞서 ‘The Sitter’의 동음이의어로 된 언어유희에 대해 세 번역서 모두 ‘안다’와 ‘앉다’의 같은 소리를 활용하였고 “McTwitter”는 “안절부절” “안짱다리”로 옮겨 “안”을 사용한 운율효과를 내었다. 위 예시에서는 영어의 언어유희의 문자적 의미를 활용한 세 번역과 다른 표현(“아이 돌보미”, “아이돌 보미”)을 사용하였다. 또한 “McTwitter”를 “보미씨”로 옮기면서 “아이 돌보미”, “아이돌 보미”에도 들어 있는 “보미”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렸다. 따라서 이 번역은 언어유희와 운율을 “아이돌보미”를 통해 한꺼번에 달성했다. 또한 “crazy”를 “돌 아이”라고 하여서 ‘아이돌’을 거꾸로 한 언어유희를 새로 만들어 내면서도, 원문의 각운에 대해 단어를 거꾸로 반복하는 운율 효과를 나타냈다. 단, 이 번역은 그림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 예시를 번역한 학생은 “babysitter”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데만 열중하여 아기가 저편에서 마구 어지르며 난장

15) 2019년 수업에서 구태훈 대학원생이 한 번역임. 번역 공개를 흔쾌히 승낙해 준 구태훈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판을 만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제안하였고, 그림에서의 재미가 사라지는 대신 “아이돌”을 통해 보상하고자 한다고 기술했다.

#### 판때기

발때기도 없으면서  
배때기는 고파오면  
상판때기 위에 붙은  
밥풀때기 떼먹을까  
거적때기 입고 나가  
판때기나 날라야지

앞서 세 번역에서 본 것처럼 원문의 “bored”, “board”의 문자적 의미를 번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동음이철어의 효과나 각운을 드러내기 힘들다. 학생은 위 번역에 대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각운을 살릴 수 없으므로 그림에 맞추어서 번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위 번역은 동음이철어의 언어유희 대신 “때기”, “때기”, “때기”로 유사한 발음의 어휘를 반복하였고, 흥부전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창의적인 번역으로 원문의 언어유희를 보상하였다. “때기”, “때기”, “때기”의 반복은 원문의 각운과 동일 어휘의 반복을 대신하였다. 학생은 원문에서 보이는 각종 ‘보드’를 살 수 없으니 아쉬워도 ‘보드(판때기)’에 만족한다는 큰 흐름에 맞추어서 ‘돈(발때기)도 없는데 배는 고파오면 막노동판에 나가 일이라도 해서 밥을 벌어야 먹어야지 뽀족한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각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격에 뺨을 맞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내용을 가져와서 일종의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문의 “skateboard”, “outboard”, “surfboard”는 사용되지 않았다.

학생이 번역한 2편은 기존의 세 번역서에서 나타난 번역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언어유희와 운율에서 동일한 어휘가 사용되어서 이 두 기제가 더 긴밀히 연결되었다(“아이 돌보미”, “아이돌 보미” “보미씨”). 둘째로, 세 번역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언어유희의 보상 전략이 사용되었다(“아이들”, “돌아이”). 셋째로, 유사한 발음의 어휘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하였다(“때기”, “때기”, “때기”). 넷째로, 한국 전래동화 흥부전을 끌어와서 내용을 전달하였다. 마

지막으로 그림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의 번역 중 ‘판때기’는 원문 어휘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TT 자체에서 리듬감이 충분히 살도록 재미있게 번역되었다. 일견 원문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이 번역은 원문에서 “board”와 관련된 소재를 반복해서 나타낸 각운, “bored”와의 언어유희, 그림에서 나타나는 “board”와 “bored”한 표정의 느낌을 한국어로 시를 읽는 독자에게도 그대로 잘 전달했다. 이는 원문에 대한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으로 볼 수 있다. 트랜스크리에이션은 원문을 바탕으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정서적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상빈(2016: 141)은 트랜스크리에이션에서 번역의 대상은 ‘의도’, ‘정신’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원문의 정신이 번역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트랜스크리에이션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선영화(2022: 150)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이 변안/각색, 로컬라이제이션과 비교해 갖는 개념 특유성에 대해 “정서적 요소, 즉 특별한 감정·느낌·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카탄(Katan 2016)은 기계번역 등으로 번역가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생이 번역한 ‘판때기’는 원문의 느낌을 TT 독자에게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통해 잘 전달하였다. 이처럼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결합된 텍스트는 번역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번역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5.3 결론

본고에서는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함께 만나는 텍스트의 번역을 살펴보고자 실버스타인의 *A Light in the Attic*의 번역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어유희와 리듬은 그 정의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번역할 때도 긴밀히 연결하여 번역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유희와 리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기제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운율과 리듬의 번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빈번히 사용된 기제 이외에도 띄어쓰기, 감탄사, 쉼표를 이용한 휴지, 문장의 변형 등이 발견되었다.

둘째, 번역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멀티모달 텍스트에서 그림은 글과 함께 의미를 형성하는 자원이다. 예컨대 ‘What

Did?’의 언어유희는 그림의 소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언어유희 번역에서 그림의 소재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으나, ‘Bored’와 같이 그림의 소재가 다양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본 학생의 번역과 같이 ST에는 없는 소재를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Importnt?’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번역 방향에 따라 그림을 바꿀 수도 있다.

셋째,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결합되어 함께 의미를 형성하는 텍스트에서는 ST의 언어에 충실한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TT2는 ST의 어휘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나 언어유희와 리듬이 주는 재미가 살아나지 않았다. 학생의 번역에서 본 것처럼 원문의 언어적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원문의 의도에 기반해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번역문 독자에게도 원문의 정서적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현대는 각종 멀티모달 텍스트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여 텍스트 번역의 범위가 언어 텍스트에서 멀티모달 텍스트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신경망 기계번역의 발달과 함께 인간번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창의적 번역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유희, 리듬, 그림이 결합된 텍스트는 번역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언어적 제약이나 그림으로 인한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A Light in the Attic*에서도 일부의 시만을 고찰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언어유희, 리듬, 그림의 결합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결과는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의 확장과 기계번역 확대의 시대에 창의적 번역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여 번역 실무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웹툰, 게임 등과 같이 언어유희와 리듬, 그림이 결합된 다른 종류의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웅 (2014) 「정지용 시의 리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31-253.
- 김도훈 (2014)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번역학연구』 15(1): 25-50.
- 김순미 (2010) 「충실성과 창의적 개입 사이의 딜레마 — 언어유희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49-77.
- 김진우 (2010) 『언어와 수사』, 서울: 한국문화사.
- 박미준, 박세리, 김지은, 권상미, 전중섭 (2014) 「영한 노래 번역 상의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 연구」, 『통번역학연구』 18(3): 177-207.
- 박슬기 (2012) 「율격론의 지평을 넘어선 새로운 리듬론을 위하여: 장철환, [김소월 시의 리듬 연구], 소명출판, 2011」, 『민족문학사연구』 48: 371-380.
- 박태정 (2013) 「게임 현지화 작업에서의 언어유희 표현 번역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571-578.
- 선영화 (2022) 「트랜스크리에이션의 개념 특유성에 대한 고찰 —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1): 137-162.
- 성승은 (2012) 「아동을 위한 언어유희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10(3): 117-145.
- 성승은 (2014) 「영한 번역그림책의 가화성 향상 제안」, 『통역과 번역』 16(3): 1-36.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연구』 6(1): 65-98.
- 이상빈 (2016) 「트랜스크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이성엽 (2014) 「그림책 번역 —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105-129.
- 이향근 (2012) 「언어유희 동시 교육의 개선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45: 381-407.
- 이향근 (2013) 「영미 동시 텍스트의 최근 경향과 시각화 양상 연구」, 『동화와 번역』 25: 245-273.

- 조재룡 (2013) 「리듬과 의미: 프랑스어 리듬의 전제 조건에 비추어본 한국어 리듬의 문제들」, 『한국시학연구』 36: 97-142.
- 이창수 (2008) 「매직스쿨 버스의 매직 번역을 찾아서-언어유희 번역 전략 연구」, 『언어와언어학』 41: 205-225.
- 장석원 (2013) 「백석 시의 리듬 — [古夜]의 강세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6: 35-59.
- 장철환 (2009) 「김소월 시의 리듬 분석 시론: 음운의 산포(散布)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2: 467-495.
- 최석화 (2014) 「한국 현대시 리듬론 재고」, 『한국근대문학연구』 30: 289-322.
- 홍문표 (1994) 『시어론』, 서울: 양문각.
- 황정산 (2011) 「한국 시가의 운율 자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4: 233-251.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rper, Thomas and Derek Attridge (2020) *Meter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Rhythm in Poetry*, London: Routledge.
- Celotti, Nadine (2008) ‘The Translator of Comics as a Semiotic Investigator’, in Federico Zanettin (ed.) *Comics i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33-49.
- Delabastita, Dirk (1996) ‘Introduction’, *The Translator* 2(2): 127-139
- Katan, David (2016) ‘Translation at the Cross-roads: Time for the Transcreational Turn?’, *Perspectives* 24(3): 365-381.
- Lathey, Gillian (2015)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London: Routledge.
- Levick, Tiffane (2016) ‘Translating Homophonic Wordplay in Patrick Goujon’s *Moi non*: A Case Study’, in Vincent Broqua and Dirk Weissmann (eds) *Sound/Writing: traduire-écrire entre le son et le sens* (Homophonic translation — traducson — Oberflächenübersetzung). Available at <https://shs.hal.science/halshs-01496355/document>.
- MacDonald, Ruth K. (1986) ‘The Weirdness of Shel Silverstein’, *Studies in American Humor* 5(4): 267-279.

- Marco, Josep (2010) 'The Translation of Wordplay in Literary Texts: Typology, Techniques and Factors in a Corpus of English-Catalan Source Text and Target Text Segments', *Target* 22(2): 264-297.
- McClintic, Grace Henderson (2016) *The Use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 Case Study with Dr. Seuss and Shel Silverstein*, MA thesis, Universidad de Jaén. Available at <https://tauja.ujaen.es/handle/10953.1/5412>.
- Nikolajeva, Maria and Carole Scott (2006) *How Picturebooks Work*, New York: Routledge.
- Pascual, Rafael J. (2017) 'Manuscript Evidence and Metrical Authenticity: A Response to Seichi Suzuki',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29(1): 85-99.
- Redfern, Walter D. (1984) *Puns*, London: Blackwell.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분석 대상 도서>

- 김원석 (역) (1990) 『다락방의 불빛』, 서울: 예문당 (원전: Silverstein, Shel (1981) *A Light in the Attic*, New York: HarperCollins).
- 신형건 (역) (2011) 『다락방의 불빛』, 서울: 보물창고 (원전: Silverstein, Shel (1981) *A Light in the Attic*, New York: HarperCollins).
- 윤구병 (역) (1982) 『다락방에 불빛을』, 서울: 한벗 (원전: Silverstein, Shel (1981) *A Light in the Attic*, New York: HarperCollins).
- Silverstein, Shel (1981) *A Light in the Attic*, New York: HarperCollins.

[Abstract]

**When Wordplay, Rhythm, and Images Meet:  
Translating Shel Silverstein's *A Light in the Attic***

Seung-eun Sung, Dongchan Woo & Kunyoung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ordplay is known to pose a challenge in translation since it combines sound and meaning. The difficulties are added when wordplay is accompanied by rhythm and images. As multimodal texts that combine wordplay, rhythm, and images to create humor are increasing in number, how to translate them poses an issue to translators. To suggest various methods for translating these texts, this study examines Shel Silverstein's *A Light in the Attic*, a collection of 135 poems with witty wordplay, rhythm and illustrations. This study compares six poems in three different translat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when translating poems with such a combination, the images can be utilized for the overall direction of translation as both the verbal and the visual contribute to the meaning. Also, wordplay and rhythm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rather than separately.

Keywords: wordplay, rhyme and meter, rhythm, verbal-visual relationships, poetry translation, translating children's poetry

주제어: 언어유희, 운율, 리듬, 글과 그림의 관계, 시 번역, 어린이 시 번역

성승은(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부교수

michsung@hufs.ac.kr

관심 분야: 아동문학번역, 번역과 이데올로기, 중역

우동찬(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사과정

wdc0915@gmail.com

관심 분야: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 유머 번역

박건영(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강사

kypark1203@hufs.ac.kr

관심 분야: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 언어유희 번역, 유머 번역

논문 투고: 2022년 11월 27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9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12월 24일